

자연숲 대신 빌딩숲... 녹지 적어 '째통도시'로

분지도 아닌 광주, 대구보다 더운 '광프리카' 왜

대구 녹지확충과 대조... 도시숲 확충 소홀 열섬현상 심각 올해 5도 높은 상층공기 유입에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도

광주는 왜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대구 못지않은 무더운 도시가 됐을까.

광주의 여름철(7~8월) 일 최저기온은 월 평균 값이 최근 2년 새 대구보다 0.7~0.9도가량 높게 관측됐고, 올 여름 열대야 발생일 수도 16일로 7일을 기록한 대구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 대구기상지정청사 이전으로 기상관측 지점이 변동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주장이지만, 기상청과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도시내 녹지 비율과 숲 면적이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녹지와 도시숲 면적이 대구보다 크게 낮은 광주가 여름철 도심 열섬 효과 탓에 점차 뜨거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광주의 도시숲(생활권) 면적은 지난 2011년 12.88km²에서 2013년 13.43km²로 0.55km² 늘어났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13.91km²에서 19.47km²로 약 40% 가량인 5.56km²가 증가했다.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이 0.007km²(7000m²)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동안 광주에 축구장 78개 면적의 숲이 들어서는 동안 대구는 축구장 794개를 뒤덮을 정도로 도시숲 면적이 급증한 것이다.

대구의 도시숲 면적이 매년 대폭 늘어난 배경에는 대대적인 나무심기 운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0년대부터 대구는 폭염의 도시, 화색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 최근까지 1000만 그

3년간 도시숲 면적 변화 비교

광주 12.88km²→13.43km²

대구 13.91km²→19.47km²

2014년 녹지비율 보니

광주 42% vs 대구 61%

루에 이르는 나무를 심고 도심 녹지를 키워왔다.

도시숲 뿐만 아니라 두 도시간 녹지비율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가 지난 2014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광주의 녹지비율(행정구역 면적 대비 녹지면적)은 41.79%이지만 대구는 녹지비율이 도시 전체 면적 절반을 훨씬 웃도는 61.09%로 파악됐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 녹지비율은 서울(30.2%), 인천(36.41%) 보다는 높았지만, 울산(69.77%), 대구, 대전(58.75%), 부산(52.42%)에는 한참 못 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대구의 열대야 관측 일수, 여름

철 최저기온은 역전 현상이 녹지비율이 낮은 데서 온 열섬효과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녹지가 인구와 인공 시설물, 자동차 통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심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열섬 현상을 완화해주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도시간 기온 비교, 도시의 기온 변화 등 기상요소는 장기적인 통계 값을 두고 분석해야 정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도시의 기온 변화에는 도심심면적, 녹지면적 등 환경적 요소가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원인에 대해 "중국 북부에서 평년 대비 5도 이상 가열된 상층공기가 한반도로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층대기에 영향을 주면서 일사량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깜짝 소나기... 시원해서 '깜짝 웃음'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무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가 내리자 한 여성이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밝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다수영대회 사망자 부검... 안전부실 집중 수사

여수 바다수영대회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여수해경이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고자 부검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이 대회 주최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인지를 가리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 48분께 여수시 소호동에서 열린 '제9회 여수

가막만배 전국바다수영대회'에 참가한 강모(64)씨와 조모(여·45)씨가 1km 구간 바다수영을 하던 중에 5분여 간격으로 각각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사고 직후 사망자를 발견한 사람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유가족을 상대로 사망자의 평소 건강상태 등 조사를 벌

이고 수영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서도 받았다.

해경은 의사 집진에서 '사인 미상'으로 나온 조씨에 대한 부검을 벌여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유족과 언론에서 제기한 주최 측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족과 대회 참가자들은 그동안 이번 사고가 주최 측의 안일한 대회 진행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여수=김형호기자 chkim@

야외수영대회 매뉴얼 마련키로

'여수 가막만 바다수영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야외수영대회의 운영 기본지침(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 지침에 사전준비 운동 실시, 경기 전 국제규정에 따른 수온 점검 의무, 참가자 규모에 따른 적정 수의 안전요원 배치, 응급구조차량 준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검찰, 박준영의원 불구속 기소

박의원, 공천헌금 조목조목 반박...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검찰이 밝힌 피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박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정석)는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자금이 부족해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보라"며 "사무총장직을 맡겨 창당비용 등 조달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일 부인과 함께 군·도의원, 조합장 등 선거구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유감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 측은 공천헌금과 관련해 "신당 창당을 추진했다가 국민의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신당에서는 어떠한 공천과정을 진행하거나 관여할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다. 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홍보비용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해당 후보업체는 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청구했다"며 "입체 측에 정확하고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사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를 실행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배우 최여진 모친, '보신탕 이윽' 기보배에 욕설 논란

모친 글 삭제·최여진 사과

모델 출신 여배우 최여진(33)의 어머니가 보신탕을 먹는다는 이유로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에게 온라인에서 욕설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온라인에 따르면 최여진 어머니는 "최소한 국가대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글과 사과문이 온라인에서 거센 논란에 휘말리자 최여진은 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최씨는 "어머니가 온라인에 게재한 글이 기보배 선수와 그를 응원하는 모든 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죄송하고 무척 보이지만 욕 좀 하겠다. 한국을 미개인 나라라고 선전하느냐"면서 기 보배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 정씨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저도 기보배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기 선수에게 지나친 발언을 한 점은 사과한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한다고 소개한 정씨는 "최소한 국가대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글과 사과문이 온라인에서 거센 논란에 휘말리자 최여진은 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최씨는 "어머니가 온라인에 게재한 글이 기보배 선수와 그를 응원하는 모든 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죄송하고 무척 보이지만 욕 좀 하겠다. 한국을 미개인 나라라고 선전하느냐"면서 기 보배를 향해 입에

/연합뉴스

세상살이 불만 50대, 달리던 차량에 벽돌 던져 6대 파손



○... "나는 못사는데 남들은 잘산다"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은 50대가 달리던 차량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경찰조사 중이다.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서모(57)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도로 앞에서 지나가던 차량 수십대를 겨냥해 잇따라 벽돌을

던졌고 그 중 6대를 파손한 혐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서씨는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조사에서 그는 "나는 못사는데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다닌다. 어차피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 아니냐 하는 생각이 화가 치솟아 돌을 던졌다"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서모(57)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도로 앞에서 지나가던 차량 수십대를 겨냥해 잇따라 벽돌을

/김형호기자 khk@



G.O. 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역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정]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m² 건물 1,495m² NPL추천물건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 [상가] 광주 서구 차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지 상가 483m² 카페, 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m² 건물 449m² 감정가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 [공정]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m² 건물 5,872m²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0억6천7백(36%)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m² 건물 827m²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원룸]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m² 건물320m² 감정가 2억6천5백 ▶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3층상가 대지 691m² 건물 1008m² 감정가 8억8천3백 ▶ 최저가 3억9천5백 (45%) 투자추천
- ★ [공정]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석곡농공단지 대지 4,753m² 건물 2,619m² 감정가 7억8천3백 ▶ 최저가 2억8천 (36%)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m²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m² 건물 1,610m²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m²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m²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m² 건물 1,829m²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m²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m² 건물3245m²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 2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등역앞 대지 480m²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m² 건물860m²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m² 건물380m²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m² 건물 900m²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m²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38m² 건물 1,088m²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m²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슈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m²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m² 건물947m²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 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